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부활 제5주일(이민의 날) 2018. 4. 29.(나해) 제2103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5)

절대적인 머무름의 시간

오늘 복음에서 가장 먼저 ‘머무르다.’는 말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활동으로 평가받는 요즘 세상에서 조금은 생소한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머무른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되도록 밤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마르 1,35; 6,46; 루카 5,16 참조) 예수님께서도 분명 엄청난 활동가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활동들 이전 혹은 이후에, 그리고 그 사이에 홀로 하느님 아버지 앞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렇게 굳건해진 성부와와의 친밀한 일치가 그분의 모든 활동에 역동적으로 메아리쳤기에, 예수님께서는 활동도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머무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깊고 내밀한 기도의 시간을 뜻합니다.

‘활동주의’라는 시대적 영향 아래에 놓인 우리들은 하느님의 손안에 가만히 자신을 놓아두고 맡겨드리는 시간을 외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활동을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합리화시키고, 철저히 주님과 나만이 온전하게 머물러야 할 내밀한 기도의 시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눈에 보이는 업적 쌓기의 향연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과정 없는 이 결과는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머무름이 충만해지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성공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내밀한 기도의 시간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없는 이 활동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밖에 던져져 말라갑니다.” 반면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 활동이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고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

정창주 프란치스코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사이비예수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천지 5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천년 왕국설이란?

‘천년 왕국설’(千年王國說)이란 ‘현존하는 세상과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사이에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백성에 의해 통치되는 천 년 동안의 지상 왕국’이 도래한다는 학설을 말합니다. 초세기 그리스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한 기대들이 퍼져있었는데, 이러한 기다림에서 천년 왕국설에 대한 믿음이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생겨났습니다. 요한 묵시록 20장의 ‘천 년 통치에 관한 대목’ 중 소위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다음의 구절들입니다. *4절: “그들(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6절: “그들(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설을 신봉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은 천 년 동안 지속될 미래 지상 왕국으로부터 앞설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이 땅에 천상 예루살렘이 내려온 자리이며, 그곳에서 부활한(첫째 부활) 의인들이, 충만한 소유를 갖고 끝없는 행복과 풍요로운 재화를 즐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천년 왕국설은 가톨릭교회의 역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는 이론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와 종말 사이에 펼쳐지는 시기가 천 년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상징적 또는 영성적인 해석으로만 남아있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천년 왕국설과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그리스도교 종파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여러 사이비 그리스도교 종파들은 대개 천년 왕국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천년 왕국설을 소개한 사람들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인데, 그들 설교의 중심 테마는 ‘회개와 재생’, ‘구원’과 같은 ‘종말론적 믿음’이었고, 그 가운데 ‘천년 왕국설’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은 (일제강점기와 이어지는 한국전쟁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이 커갈 때 한국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더욱 번져갔고, 신비주의적 극단적 해석이 첨가되어 사이비교회의 주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장차 하느님의 나라와 구분되는 지상의 왕국이 천 년 동안 지속하리라는 이들 사이비 종파들의 주장은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나라에 속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자칫하면 그들 자신이 그 나라에 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의식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천년 왕국설은 삶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과 어떠한 확실한 희망을 새로운 왕국의 다가옴에 대한 기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진지한 사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비 그리스도교 분파들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태를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나자렛 예수님이 죽은 후에 계시를 받아 새 육체를 입고 세상에 다시 돌아온 메시아가 바로 교주 이만희이고, 오직 그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천년 왕국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니, 하느님의 완성된 나라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준비하는 유일한 천년 왕국이 바로 자신들의 교회라는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신천지의 종말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류성당,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흐르다!

이지우 아우구스티노 | 두류본당 교육위원장

세상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흘러오는 것일까요? 두류성당에는 공동체의 사랑이 한데 모여 흐르는 영적인 샘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천광성 바오로 신부님(원로사제)의 지도로 시작된 ‘사랑의 샘’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을 방문해 영성적 도움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21세대까지 확대되었으나 건강악화로 세상을 떠나거나 이주를 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13세대 남짓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월 평균 이백오십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 12명을 필두로 하여 정기적 납부와 익명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메마르지 않도록 샘터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단함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간절한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세대의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몫이 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미약한 도움이나마 사랑의 샘물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고령의 루시아 할머니께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며 고단한 얼굴에 기쁜 주름을 지어 보이십니다. 젊은 시절 수도자를 꿈꾸었으나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동생들의 학업과 뒷바라지로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루시아 할머니께서는 남편과 자식 없이 평생 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내장으로 인해 사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당에 나와 기도하고 주보 나눠주기 같은 당신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봉사 활동까지 하며 신앙생활에 쉼 없는 분이십니다.

한편, 사랑의 샘은 매월 셋째 주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본당의 어르신들과 회원들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각자의 사정을 살뜰히 보살피는 마음이 움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끈으로 이어진 공동체이며 주님의 포도나무에 열린 소중한 한 알임을 더욱 더 실감합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향후 본당의 모든 신자가 동참하여 사랑의 샘지기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닿기를 희망해 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은 구원으로 가는 빛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발짝씩 내딛는 두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대야말로 복음의 가르침과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문**

아하~ 그렇구나!

알송달송 천주교 용어

십자 성호 十字聖號 <라> signum crucis <영> sign of the cross

손으로 이마와 가슴과 양쪽 어깨에 십자 모양을 긋는 것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타내는 널리 알려진 상징입니다. 성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밝히는 표시입니다.

알렐루야 <라> alleluia <영> alleluiah

히브리 말로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말을 음역하여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가톨릭 전례에서는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애덕 愛德 <라> caritas <영> charity, love

향주덕(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사랑의 덕’을 가리킬 때에는 “애덕”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양형 영성체 兩形領聖體 <라> communio sub utraque specie <영>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축성된 빵(성체)과 포도주(성혈)를 함께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말합니다. 교회 초기에는 모든 신자가 양형 영성체를 하였으나, 중세에는 빵의 형상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에 따라 양형 영성체가 사라졌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이후 그 전통이 복구되었습니다.

어깨보 <라> humerale <영> humeral veil

성직자가 성체를 옮기거나 행렬 또는 성체 강복을 할 때에 성체를 감싸 모시기 위하여 어깨에 걸치는 옷을 말합니다.

연미사 -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상, 연옥 영혼을 위한 지향을 갖고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라고 합니다.

열교 裂敎 → 이교 離敎

schisma는 어원으로 보면 “열교”(裂敎)이지만,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이교”(離敎)라 하고, 역사적 사건은 “분열”, “분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대 領帶 <라> stola <영> stole

사제가 장백의를 입은 뒤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폭이 넓은 띠를 말합니다. 사제의 직책과 의무, 권한과 품위를 드러냅니다.

영명 축일 靈名祝日 <라> festum nominis baptismalis <영> feast of baptismal name

“본명”은 되도록 가장 정확한 표현인 “세례명”이라고 쓸 것을 권장하고, “영명 축일”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례명**

제104차 이민의 날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사도 9,26-31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	요한 15,1-8.
화답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큰 문화미술제

문학 및 미술부문 2018년 4월 30일(월) 접수마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나 지역,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성작가 및 전문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7~9으로 문의하시거나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청 진입 차량 통행 및 주차장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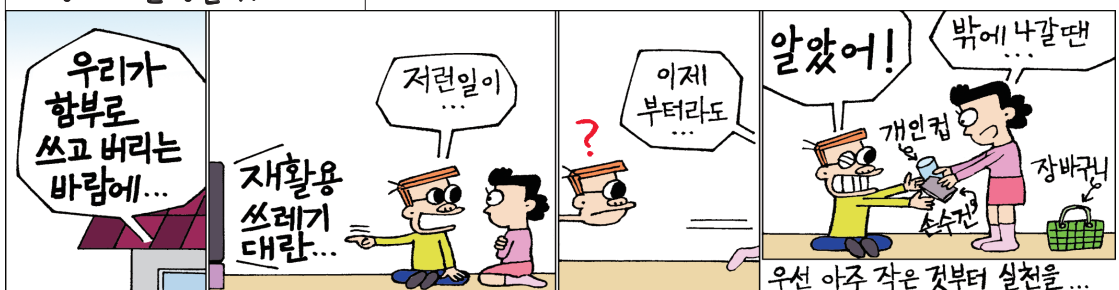
2018년 5월 1일부터는 <성직자 묘지 앞~까리타스 카페 입구> 구간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여, 특정 행사일 이외에는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문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대진인쇄소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업무를 보신 후 정문으로 출차하시고, 후문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사회복지회 앞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후문으로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에서 후문 간의 통행이 불가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오늘 나에게 잘못된 형제자매의 잘못을 따지거나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겠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하여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2일(수) 19:00 용강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5월 5일(토) 11:00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5월 5일(토) 10:00 프란치스코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2730-8691

작은예수수녀회 성소 모임

문의: (010)8939-7979 전화상담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5.5(토) 10:00
일정: 영성특강, 찬양미사,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아고보) 신부
서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성모 신심 피정)

일시: 5.23~6.27 매주 수 13:30~16:30
장소: 도량성당 / 신청비: 2만 5천원
주관: 파티마의세계사도직한국본부
문의: 도량성당, (054)453-0010

청년 성령 강림 전례 피정

일시: 5.19(토) 16:00~20(일) 18:00
장소: 툇핑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청년 누구나
문의: (010)8519-3431

바틀로교육센터 첫영성체 가족 피정

일시: 5.13(1차), 5.19(2차), 5.20(3차)
5.26(4차), 5.27(5차)

각 차수 당 선착순 20가족(본당별)
문의: 783-9817 / (010)9868-9817

제13차 여성 성령 묵상회(피정)

일시: 5.18(금)~20(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성령강림사도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향심기도 피정

소개 피정: 5.12(토)~13(일) 1박 2일
심화 피정: 5.19(토)~21(일) 2박 3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대상: 기도하고 싶은 분 누구나
문의: (010)5332-7587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 생활영어 (화, 목)
성가반주 (수, 토)
문의: 476-6211(교대역 3번 출구)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전축복식 초대

저희 가르멜수녀원 재건축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 성전봉헌과 수도원 축복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19(토) 11:00, 본 수도원 성당
문의: 대구가르멜수녀원, (010)3375-4408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5.29(화), 성모님 발현지
경비: 415만원(11박 12일)

일시: 5.31(목), 이스라엘, 이탈리아
경비: 448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제52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아름다운 아일랜드에서 영어연수
대학: 7.1(일)~8.12(일)
일반(30~75세): 7.8(일)~8.19(일)
설명회: 5.12(토) 14:00, 대명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SOS프란치스코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위치: 대구 동구 방촌로1길 17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대상자)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_3차)

일시: 5.17(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퇴행성 관절염, 완치는 가능한가?
강사: 정형외과 조명래 교수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20차)

일시: 5.31(목)~6.1(금) 9:00~18: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에델홀
교육비: 3만원(대구은행, 508-12-870220-9 예금주_박명희)
문의: 940-7517(17시까지 가능)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35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빌딩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틀·부항기
주열가·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물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점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비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이마트 만촌점 옆)
◆말기암 통증/증상 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돌봄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상담/입원 053)217-9500

2대 반세기, 건강관 관철,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3.0T MRI, CT / 위, 대장 내시경
공단검진 지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당,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정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베로니카의 스페인어 교실
스페인어 문법 회화
정영옥(베로니카)
010-4062-1366
봉산동 봉산문화거리 91
(봉산 문화회관 옆)

대구 어린이 서점
칠곡 북놀이터
어린이 도서 전집류 판매
도서 및 교육상담
원장 조 은 미(세라파나)
칠곡 동아백화점 빌관 옆 ☎ 053)321-2870
NAVER 북놀이터 서점 검색

† **최호철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5월 2일(수) 10: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행사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일시: 5.9(수)~10(목),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5.3(목) / 신청비: 6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39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일시: 5.14(월)~18(금) 14:00~17:00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 / 마감: 5.9(수)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수강료: 3만원(함께하는 여정 교재 포함)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WYD(세계청년대회) 모임

일시: 2019.1.14(월)~2.1(금) 18박 19일
대상: 2002.1.1 이후 출생자~
만 39세까지 / 총 35명(선착순)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김종숙(요안나) 도예 성물전

일시: 5.10(목)~24(목)
장소: 범어성당 드망즈갤러리
주제: 엄마생각 하늘생각
판매수익금은 바오로동지녀신희
후원금으로 이용됩니다.

선교 교육의 날(정기 모임)

일시: 매달 둘째주 월 11:00~16:0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야고버)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있는 분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교육 | 모임

성마리아 영어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낮반: 매주 수 15:00~17:00
저녁반: 매주 금 19:00~20:30
장소: 불로성당
과정: 창세기, 마르코 / 월 3만원
문의: 981-2035 / (010)2578-5535

2018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시: 4.23(월)~5.10(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6(교육)
660-5252(특수) / <http://www.cu.ac.kr>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신설

빛떼제 기도

일시: 5.12(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3669-5901

전인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도서실 '읽는 약방'
문의: (010)8577-9667 문자가능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해외 후원자 모집

해외 9개국 빈곤아동을 지원하고,
9개국 미사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관: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423-3008

채용 | 안내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조리사·위생원 채용

일시: 채용시까지 / 자격: 61세 미만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접수: 우편, 방문(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팩스(054)383-0635
문의: (054)382-2835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연호(바오로), 최경선(데레사)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추가: 7월, 8월, 9월, 12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2018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내용: 사제단 명부, 본당, 평신도위원회
및 제단체, 교구 산하기관 주소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판매가: 5천원 / 625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7

활인행사 20~30%
죽기 전제명 홍삼
홍삼순액, 홍삼농축액
녹용홍삼, 산양산삼
이옥이(실비아), 도석록(스테파노)
☎ 793-5325, 010-7744-5768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원정 성모의집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노인복지주택 (054)434-2898
노인전문요양원 (054)435-8122
김천시 남면 주천로1448-16
(김천구미 KTX역에서 차량으로 15분)

LACOSTE
라코스테 대구 동성로점
단체복 문의 우대할인
가톨릭 신자 10% 할인
최현국(프란치스코)
대구 중구 동성로1길 29-36
☎ 053)427-0747 | 010-7292-7895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